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쉬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홀로 구별되어 계시는 분'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 질 때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주제는 레위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닮은 거룩한 인생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 놓으신 그 분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 역사는 온통 죄악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이 주는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룩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 20:26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지금 읽어 드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聖徒)'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살후2:13).

오늘 본문인 19-22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을 30여 차례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레22:32-33)."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써 실제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며, 경제활동이나 법적인 측면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행실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거룩한 삶은 어제 함께 보신 18장과 오늘 19장에 걸쳐 우리 인생의 거의 전 부분을 망라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

언급된 인간의 죄악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추악하게 범하게 되는 죄악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은 젊은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로서 주의해야 할 것 등을 알려 주셨는데, 특히나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유혹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물질, 성, 명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없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러한 유혹에 빠져 범죄라도 하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에서는 18장에 기록된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돌로 치라' '백성 중에서 끊을지라'는 말씀 즉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롬 6:23의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인간 죄악의 결과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인간 본성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사망은 죽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가운데 사탄 마귀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1:8-9)."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일 동안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